

젊은부부 가사분담 새풍속도

평등의식반영 아내가 가장맡는 가정 생겨나 집안일은 절반씩 나누고 아기보기도 교대로

“앞으로 5년 동안은 가정경제를 아내가 책임진다. 남편은 그동안 가족부양 의무에서 벗어나 자신이 진짜 하고 싶은 새로운 일을 찾을 시간을 갖는다. 5년 뒤 가족부양 의무는 남편에게 되돌린다.”

외국 은행에 다니는 김인애(33)씨가 결혼 5주년을 맞은 지난 1월 초 남편과 합의한 ‘가장 교대 계약’이다.

남성해방도 필요

김씨는 “가정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의 부담에서 벗어나 평생을 바쳐 할 일을 찾고 싶다는 남편의 솔직한 고백을 듣고 ‘여성해방’ 못지않게 ‘남성해방’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당분간 여성가장이 되기로 남편과 합의했다”고 말했다.

최근 20~30대 젊은 부부 가운데 김씨처럼 양쪽의 합의에 따라 아내가 가장 역할을 맡는 가정이 생겨나고 있다.

예전에도 남편과의 사별 또는 이혼으로 여성이 가장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지만, 남편이 있는 데도, 그것도 부부간의 합의에 따라 아내가 가장이 되는 것은 분명히 새로운 현상이다.

평생직업을 가진 여성들이 늘어나면서, 남편과 아내가 가정에 대한 책임과 권리를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는 평등의식이 확산되면서, 이런 새로운 풍속이 등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성 가장’의 등장 못지않게 ‘육아와 가사의 분담’도 젊은 맞벌이 부부들 사이에선 자연스러운 일이다.

2년 전 사내 결혼을 한 진만웅(33·풀무원식품 관리본부) 맹운희(28·편집부)씨 부부는 육아와 집안일을 ‘여자 일’ ‘남자 일’ 나누지 않고 같이 한다.

퇴근 뒤 맹씨가 저녁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남편 진씨는 생후 8개월 된 아기와 놀아주면서 집안청소를 한다.

식사 후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한 사람은 설거지를 하고 한 사람은 빨랫거리를 세탁기에 넣어 돌린다.

조흥준(33·서울중앙병원 의사) 고은명(29·창작과비평사 편집부)씨 부부도 아기보기와 집안일을 철저히 분담하고 있다.



달라진 여성
달라지는 사회

3



직장에서 퇴근한 뒤 낮 동안 탁아소에서 놀던 아기와 만난 김병민(30·여성사 영업부장), 이경희(30·지역사회탁아소 연합회 사무국장)씨 가족.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퇴근길에 탁아소로 아기를 찾으러 오는 남성들의 모습이 낯설지 않게 됐다.

이종찬 기자

4년 전 결혼할 때 “모든 가사노동을 절반으로 나눠서 하자”고 약속했다는 이들 부부는 밤에 생후 6개월된 둘째아이를 돌보는 일을 하루씩 교대한다.

자다 일어나 우는 아기를 달래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등의 일을 한 사람이 도맡을 경우 “이런날 직장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때문”에 ‘하루씩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 또 일요일 청소는 남편, 음식 준비는 아내가 맡는 식으로 분담한다.

육아, 빨래, 청소, 설거지 같은 집안일을 ‘여성만의 일’로 여기지 않는 것은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잘 나타난다.

여론조사기관 서울리서치가 최근 서울에 사는 20~30대 남녀 2백3명을 대상으로 ‘신세대부부 라이프 스타일’을 조사한 결과, 79%가 집안일 분담에 찬성했다.

부부가 절반씩 나눠 하는 일은 자녀양육이 39.1%로 으뜸이고 가계관리 24.1%, 집안청소 16.7%,

빨래 14.8%, 부엌일 11.8% 차례였다.

“자, 남편들도 접시를 꺼자. 아내에게도 시간은 필요한 것”이라는 노래말로 시작되는 대중가요 〈접시를 꺼자〉가 얼마전 크게 인기를 끈 것이나, 이 노래의 노래말을 바꾼 텔런트 유인촌씨가 세탁기에 빨래를 집어넣으며 “자, 남편들도 빨래를 하자. 아내에게도 시간은 필요한 것”이라고 노래하는 세탁기 광고는 요즘 젊은 부부들의 세태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하루씩 고통분담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백화점이나 슈퍼마켓에서 함께 장을 보는 젊은 부부들, 출근길이나 퇴근길에 탁아소에 들러 아기를 맡기거나 찾아가는 남성들의 모습도 이제 낯설지 않다.

맞벌이부부를 위한 ‘24시간 탁아소’를 운영하는 사단법인 ‘사랑의 전화’의 김순애 간사는 “탁아

소가 처음 문을 연 3년 전만 해도 아기를 찾으러 오는 남성이 어쩌다 한두명이었는데 요즘은 30% 정도로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 퇴근길에 아기를 찾으러 오는 남성이 늘어난 까닭은 직장에 다니는 여성이 많아진 탓도 있지만, 젊은 부부들이 육아에 동등하게 참여하기 때문인 것 같다고 김 간사는 풀이했다.

직장에 나가 있는 동안 아이를 맡기기 위해 친정 근처로 이사하는 여성들이 많아지는 것도 두드러진 변화다.

아침에 출근하며 아이를 친정에 데려다 주고 퇴근 때 들러 찾아오는 경우가 많고, 아예 친정 어머니 여동생이 아이를 봐주러 오는 경우도 있다.

“시가보다 친정이 편해서”라고 여성들은 말하지만, 실은 하루 일당이 2만~3만원이나 하는 파출부에게 아기 돌보기를 맡기면 한달에 50만~60만원 정도의 지출을 감수해야 돼 친정쪽에 육아를 기

대는 셈이다.

종래의 며느리들처럼 시댁의 일에 얽매이지 않고 사회인으로서 자신의 일에 충실하려는 여성들도 늘고 있다.

결혼 7년째인 심정인(33·SIM비즈니스컨설팅 대표)씨는 결혼했다고 직장인으로서 자신의 임무보다 시댁의 대소사를 우선해야 한다는 데 반대한다고 말한다. 직장 사회에서의 ‘내 일’을 소중히 여기는 심씨는 시가의 대소사를 위해 휴가를 내고 시가에 들르지 않는다. 일을 제쳐놓으면 그만큼 일처리가 늦어지고 회사에서 여성은 뒤질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분담 79% 찬성

그가 시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결혼은 부모로부터의 독립’이라고 생각하는 남편 곽혜선(35·직원)씨의 ‘외조’가 절대적으로 도움이 됐다.

시부모가 그에게 보통의 며느리처럼 시가 풍습에 따를 것을 요구할 때마다 “여성이 결혼한 뒤에 모든 일을 자기 중심보다는 시댁 중심으로 하는 것은 고쳐져야 할 폐습”이라고 부모에게 당당하게 말하는 남편의 ‘트인 결혼관’은 심씨가 그런 폐습으로부터 ‘해방’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로 인한 고부갈등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일을 위해선 어쩔 수 없다”고 심씨는 털어놓았다.

최근 젊은층 가정에서 볼 수 있는 여성 가장, 육아·가사 분담 현상 등에 대해 여성학자 오숙희씨는 “남녀동등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20~30대 젊은 부부들 사이에 가정의 민주화, 평등한 부부관계가 이뤄져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분석한다.

시댁보다 내일 먼저

특히 경제적으로 남편에게 의존하지 않고 서로 동등하게 가정에 대한 의무나 부담을 기꺼이 나누고, 결혼은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요즘 여성들의 달라진 의식은 앞으로 가정의 변화를 더욱 거세게 몰고 올 것이라고 오씨는 내다본다.

신연숙 기자